

Tracheal and esophageal injury by fish bone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재범 · 금동윤 · 박창권

생선가시에 의한 식도천공은 가끔 경험할 수 있으나 식도와 기관지가 동시에 천공된 증례는 드물다.

57세 남자환자로 내원 4일전 생선을 먹은후 가시가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당일 오한과 열감이 있어 내원하였다.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종격동염 징후가 발견되어 금식과 항생제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중 입원 5일째 우측흉강으로 농흉이 발생하여 흉관을 삽입하였으나 효과적인 배농이 되지 않아 입원 8일째 배농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중 화농성 객담이 증가하는 소견이 있어 입원 20일째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여 기관지 내 손상을 발견하고 입원 35일째 수술을 시행하여

손상된 기관지의 주변부를 제거후 일차봉합을 하였다. 이후 시행한 식도조영술에서 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다량의 누출이 발견되어 입원 38일째 수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출부에 일차봉합을 한후 전거근으로 보강을 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던 중 식도조영술에서 누출이 지속되어 입원 55일째 위장관루를 만들어 식이를 하였으며 이후 시행한 식도조영술과 기관지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으로 식이를 시행하였다. 상처감염이 있어 자주 소독을 하며 보존적 치료로 완치하여 입원 96일째 퇴원을 하였다.

급성 종격동염, 기관과 식도 천공 및 상처감염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시켰기에 보고하고자 한다.